

탐의 진화

④ 아쇼카 왕의 8만 4천 불탑 조성 (불탑신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

〈찬집백연경〉, 〈잡보장경〉과 함께 불교의 3대 비유 경전으로 꼽히는 〈현우경〉의 ‘아수카시토포’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튿날 아침에 사자인 아난존자와 함께 걸식을 하기 위하여 성안에 들어가셨다. 길을 가는 도중에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흙을 모아 집과 창고를 짓고 곡식과 땅은 보물을 만들었다.

그때, 한 아이가 멀리서 오는 부처님의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무한한 공경심과 무엇인가 보시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생겼다.

그 아이는 곧 창고에서 곡식이라 이름 지은 흙을 한 줌 쥐어 부처님에게 보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키가 작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어깨 위에 올라가 부처님에게 흙을 바쳤다. 부처님께서 발우를 닦고 머리를 숙여 그것을 받아 아난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방바닥을 바르라”고 하셨다.

걸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아난존자는 그 흙으로 부처님 처소의 방바닥을 바랐다. 처소에 돌아온 부처님은 “죽 전에 그 아이가 기쁘게 흙을 보시하여 내 방 한 귀퉁이를 바랐다. 그 어린아이는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반한 지 백 년 뒤에 국왕이 되어 이름을 아수카라 할 것이요, 또 나를 위해 8만 4천의 탑을 세울 것이다.” 〈대정신수대장경 4권 368쪽 하단〉라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역사 속에 전륜성왕으로 칭송받던 그 유명한 아쇼카 왕이다. 이처럼 경설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쇼카 왕의 전생에 8만4천 조탑 인연의 수기를 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잡아함경〉 제23권 604번 ‘아유왕경’의 경설에는

한 소년이 부처님께 모래 한 줌을 보시하자 부처님은 웃음으로 답하는데, 아난이 그 웃음의 의미를 물으니, “모든 여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웃지 않느니라. 내가 지금 웃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느니라. 아난! 알아야 한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100년이 지난 뒤에 이 소년은 파린불음에서 한 지역을 통치하는 전륜왕이 될 것이니, 성은 공작이요, 이름은 아욱으로 바른 법으로 다스리고 교화할 것이다. 또 내 사리를 널리 전파하고 8만 4천 법왕의 탑을 만들어 한량없는 중생을 안락하게 할 것이다.” 〈대정신수대장경 2권 162쪽 상단〉라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아쇼카 왕이 8만4천탑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하는 경전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아쇼카 왕이 실제 많은 탑을 조성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쇼카 왕은 왜 8만4천의 불탑을 조성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쇼카 왕의 생애를 먼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빔비사라 왕 시대부터 마가다국의 정치세력은 날로 확대되어 다른 군주국가나 부족 국가를 병합해 나갔다. 이를 이어받아 통일의를 달성한 것이 마우리아 왕조로서 그 시작은 할아버지인 찬드라굽타이다. 이 찬드라굽타의 신분계급에 대하여는 귀족부터 천민까지 다양한 학설이 있으나, 마우리아 부족 출신으로 기원전 321년 난다 왕조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였다. 찬드라

아쇼카 불탑 8만4천기 조성 ‘폭정 참회’



사르나트의 다르마지카탑은 당나라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아쇼카왕이 조성한 것으로 높이가 100여척이었다고 한다. 1794년 건축자재 충당을 위해 해체되었다.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굽타는 뚜렷한 종교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의 뒤를 이은 왕이 빈두사라 왕(재위 기원전 297~268)인데, 그는 내란을 평정하고 영토를 더욱 확장하였다. 빈두사라 왕은 수십 명의 부인과 101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쇼카 인 것이다. 아쇼카 왕은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다. 평소 후계자로 신뢰 받지 못한 아쇼카는 부왕인 빈두사라 왕이 갑자기 죽자 그의 어린 친동생 하나만을 남기고 99명의 다른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이처럼 아쇼카의 포악함에 대하여 ‘아유왕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전생 소년 때 부처님께 흙밥 공양 전륜성왕·불탑조성 수기 받아 불탑신앙 단초, ‘8만4천’은 상징 아쇼카왕 불탑 고구려탑의 기원

8만 4천 불탑의 건립이었다.

그 당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호칭인 전륜왕으로서 아쇼카 왕은 8만 4천 불탑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복덕을 기대하였고, 특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공덕을 쌓고자 했던 것은 깊은 신앙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쇼카 왕은 지난 호에 소개한 여덟 개의 근본 불탑에서 사리를 분배하여 8만 4천 기 라는 수많은 불탑을 조성하며, 불탑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단초를 만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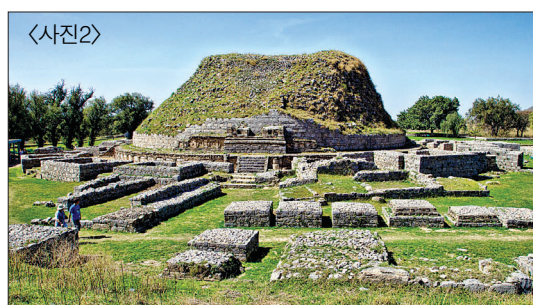
물론, 8만 4천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한다.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8만 4천이라는 숫자의 상징을 알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대목이다.

8만 4천이란 숫자는 많은 수를 의미하지만, 〈잡아함경〉의 소경인 ‘대본경’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수명의 나이를 의미하며, 또한 길(壽)한 수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정신수대장경〉 1권 23쪽 상단

이처럼 한역 경전에는 아쇼카 왕의 8만 4천 탑 조성이 신앙적으로 강조되지만 아쉽게도 현존 역사적 유물인 아쇼카석주에 의하면, 왕은 오직 코나카마나(Konakamana) 불탑을 수리한 사실만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나 현장 등의 구법승들이 인도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아쇼카 왕이 조성한 많은 불탑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는 비록 문헌상으로는 없지만, 우리나라 불탑 조성의 기원이 되는 아쇼카 왕의 불탑이 고구려에서도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제 3권 ‘탐성편’의 ‘요동성 육왕탑(遼東城 育王塔) 조에 의하면, 옛날 고구려 성왕이 요동 지방을 순행하던 길에 한 곳에 이르자 오색구름이 땅을 뒤덮는 것을 보고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사진2〉
타실라 다르마지카 불탑.



〈사진3〉
스왓트의 붓카리대탑.

그곳에는 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스님은 없어지고 멀리서 보던 도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곁에는 삼층으로 된 토탑(土塔)이 있었다. 이 토탑이 바로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이며, 성왕은 이 인연으로 불교를 믿을 마음이 생겨 그 자리에 7층의 목탑을 조성하였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아쇼카 왕의 8만 4천 불탑 조성의 불사가 미국명인 고구려에 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전에 따라 아쇼카 왕은 근본 8탑의 사리를 전부 꺼내지 못하고 일곱 개의 탑에서만 사리를 꺼내 8만 4천으로 나는 장면이 실려져 있어 흠미를 자아낸다. 〈불소행찬〉에 의하면, 아쇼카 왕은 바른 성품을 받아 태어나서, 능히 천하를 두루 건지었다. 그는 일곱 왕이 만든 탑을 열고, 거기서 사리를 꺼내 그것을 나누어 허무아침에 8만 4천 개의 탑을 세웠다. 그중에 오직 여덟 번째 탑만은 마라(摩羅) 마을에 있었는데, 신과 용들이 지켜 보호하여 왕이 사리를 얻을 수 없었다. 〈대정신수대장경 4권 54쪽 중단〉라고 하여 7개의 불탑만을 해체하여 사리를 분배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아쇼카 왕의 8만 4천 불탑 조성의 불사가 중국 역사 속에서 오월국의 전홍숙 왕처럼 실제 재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쇼카 왕이 조성한 불탑으로 추정 되는 예는 몇 기에 지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즉, 산치 제1탑, 사르나트의 다르마지카탑, 타실라의 다르마지카탑, 스왓트의 붓카리대탑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르나트의 다르마지카탑은 당나라 현장(602~664)스님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아쇼카 왕이 조성한 것으로 높이가 100여척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794년 바라나시 건축의 석재와 벽돌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가트 싱’이란 관리에 의해 헐리게 되었다. 이 때 해체 되는 과정에서 석재로 된 사리함이 출토되었고 그 안에는 뱀조각이 들어 있었다.

부처님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은 이 뱀조각을 ‘자가트 싱’의 일당들은 무식하게도 갠지스 강의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냈고 사리함은 탑 근처에 버려두어 영원히 소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현재는 〈사진1〉처럼 그 터만 남아 있게 되었다.

오늘날 국명이 파키스탄이며, 인더스강 상류지방에 있는 타실라에도 다르마지카 불탑이 있다. 다르마지카란 법왕(Dharmarajika)을 의미하며 곧 아쇼카 왕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타실라는 아쇼카 왕이 젊은 시절을 보낸 곳으로 이곳에 불탑을 조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현재는 수차례의 보수에도 불구하고 원형기단의 모습만을 유추 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사진2〉

스왓트의 붓카리대탑(사진3)은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에도 거론 된 탑이다. “몽골리성의 동쪽으로 4~5리 가다보면 큰 탑이 있는데 상서로운 징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육보살이셨을 때 이곳에서 갈리왕을 위하여 자신의 신체를 잘랐던 곳이다.”라는 기록이다. 또한 법원 스님의(불국기)에 의하면, “오장국(스왓트)의 사람들은 불심이 매우 돈독하여, 스님들이 거처하는 약 500여 개의 승가람이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아쇼카왕이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라는 내용이다.

이 붓카리대탑은 1956년부터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도메니코 파세나에 발굴되었다. 발굴 당시 동전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현재 토리노 시립 박물관 등에 보존되어 있다.

다음 호 부터는 현존하는 산치 탑을 시작으로 불탑 신앙의 변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글·우인보

세태회대와불 북에 쌀바위 미암사 성지순례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공을 들어 살도 나오고, 소원도 성취했다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이름을 따서 쌀(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 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음자만 1만 6천여자가 새겨져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열반상 목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당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이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가 제거되며, 신선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신진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 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불기 2558(2014)년 1월

불교성지 미암사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 128 | 문의 ☎ 041)832-1188 | 전송 ☎ 041)832-1187